

소학(小學)이 부재하는 현실과 도덕적 삶의 문제

이한석
(서울대 국문과)

1. 소학¹⁾이 부재하는 현실

古者初年入小學，只是教之以事，如禮樂射御書數及孝悌忠信之事。…

예전에 처음 소학에 입학했을 때는 단지 일처리만을 가르쳤다. 예컨대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셈하기와 효도, 우애, 충성, 신의와 같은 일이다. … (학1-1)

古人便都從小學中學了，所以大來都不費力。…而今自小失了，要補填，實是難。…

옛 사람들은 모두 소학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커서는 힘이 들지 않는다. … 그러나 요즘은 어릴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학1-8)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공부론(工夫論)²⁾에 해당하는 첫 번째 권의 이름은 ‘소학’이다. 또한 그 첫 조목은 “예전에 처음 소학에 입학했을 때는 단지 일처리만을 가르쳤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
- 1) 본고에서는 ‘소학’이 동음이의어로 쓰이기 때문에 각각 그 표기를 달리하여 구별하였다. 학교제도 혹은 공부의 단계를 의미할 때는 ‘소학’으로, 주희와 유청지가 지은 책을 의미할 때는 『소학』으로 표기하였다. ‘대학’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 2) 공부론에서는 인간다움을 완성하고 성인(聖人)이 되는 길을 탐구한다 (정순우, 『『주자어류』 공부론 번역에 대한 현사, 『주자어류』3, 허탁·이요성·이승준 역, 청계, 2001, p. 7).

역은이의 의도를 헤아려보자면, 주희(朱熹, 1130~1200)의 공부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소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주희는 소학을 어린이들에게 일상의 사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학교로 이해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이러한 교육 전통은 끊어지게 되었고 이에서 비롯하는 결핍을 보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주희는 1183년부터 4년에 걸쳐서 유청지(劉淸之, 1139~1195)와 함께 『소학』을 편집한다. 옛날 소학에서 교육하던 모습을 좇아서 “어린이들에게 주어서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³⁾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주희는 지금의 현실에서 학문하는 가장 큰 문제로 소학 교육의 단절을 꼽았다.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는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소학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⁴⁾. 따라서 소학의 부재는 단순히 어린이를 교육하는 제도나 그 규범을 모아놓은 지침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능성이 어떠한 교육·공부의 단계를 통해서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공부론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본고⁵⁾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

3) 以爲此書，授之童蒙，資其講習。『소학서제(小學書題)』, 『소학(小學)』, 주희·유청지 편, 윤호창 역, 홍익, 2005, p. 23.

4) 이러한 지적은 위의 『주자어류』에서뿐만 아니라 소학의 서문과 통론에 해당하는 「소학서제」, 「소학제사(小學題辭)」에서도 드러난다. “옛날 소학에서는 물 뿌리고 쓸며, 웅대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벗과 친하게 지내는 도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모두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히 한다’는 「대학」의 가르침의 근본이 된다 … (古者小學，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 (Ibid., p. 23). “… 융성했던 시대와는 멀어지고 성인은 가고 없기에 경서는 이지러지고 가르침의 법도도 해이해졌다. 그래서 어릴 때의 가르침이 바르지 않게 되고 자라서는 더욱 경박해지고 사치해진다 … (… 世遠人亡，經殘教弛，蒙養弗端，長益浮靡，鄉無善俗，世乏良材，利欲紛拏，異言喧騰。…)” (『소학제사』, 『소학』, 주희·유청지 편, 윤호창 역, 홍익, 2005, p. 25).

5) 본고는 『주자어류(朱子語類)』³ (黎靖德 編纂, 허택·이요성·이승준 역, 청계, 2001) 중에서도 「學一：小學」, 「學二：總論爲學之方」, 「學三：論知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학1」은 소학에 관한 내용을, 「학2」는 실제 공부

추어 소학의 부재라는 주희의 현실인식이 그의 공부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학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주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론을 전개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옛 공부

2.1. 미발에 가하는 공부와 이발에 가하는 공부

주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형이상의 미발(未發)과 형이하의 이발(已發)로 나누어 이해한다. 희노애락이 발하기 이전의 도덕적 가능성으로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는 본성이 미발이라면, 사물에 접촉하여 희노애락이 발한 후의 마음이 이발이다. 이러한 심성론에 근거한다면 주희의 공부는 미발에 갖추어진 도덕적 가능성을 현실차원의 이발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표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학3」은 지각(知覺)과 실천, 함양과 궁리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고 보아,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각 권을 지칭할 때는 각각 「학1」, 「학2」, 「학3」으로 약칭하였다. 또한 직접인용의 경우, 예컨대 「학2」의 조목 125는 「(학2-125)」로 약칭하였다. 또한 『주서백선(朱書百選)』(朱子思想研究會 譯, 해안, 2000)에 실린 「장흠부에게 답한다(答張敬夫)」(p. 100~103), 「호광중에게 답한다(答胡廣仲)」(p. 285~287), 「오희숙에게 답한다(答吳誨淑)」(p. 297~299) 등의 편지글에도 본고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여 참고하였다. 「장흠부에게 답한다」는 1169년 장흠부와 왕복한 두 번째 편지이며, 「호광중에게 답한다」는 1171년 호광중과 문답한 두 번째 편지이며, 「오희숙에게 답한다」는 1172년 무렵에 오희숙에게 답하는 아홉 번째 편지이다. 인용할 때는 해당하는 편지가 실린 『주서백선』의 페이지 수를 표기하였다.

- 6) 앞에서 말한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이전’과 ‘이후’는 시간상의 구분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혹은 인식론적 구분이다. 사물에 접함으로써 인간은 겉보기에 이발의 마음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여전히 미발의 마음이 있는 까닭에 인간은 항상 도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pp. 201~202; pp. 281~282).

아래 그는 미발에 가하는 공부와 이발에 가하는 공부의 두 갈래 길을 제시한다.

成己方能成物, 成物在成己之中. 須是如此推出, 方能合義理. 聖賢千萬語, 教人且從近處做去. 如灑掃大廳大廊, 亦只是如灑掃小室模樣, 掃得小處淨潔, 大處亦然. 若有大處開拓不去, 即是於小處便不曾盡心. …

자신을 이루어야 비로소 외물을 이룰 수 있으니, 외물을 이루는 것은 자신을 이루는 데 달려있다. 반드시 그와 같이 미루어나가야만 비로소 의리에 합치될 수 있다. 성현의 수많은 말씀은 사람들에게 우선 비근한 것을 좇아서 행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비유컨대 커다란 대청과 행랑을 청소하는 것도 역시 단지 조그만 방을 청소하는 모습과 같으니, 조그만 곳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면 커다란 곳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약 커다란 곳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그만 곳에서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학 2-20)

미발에 가하는 공부의 출발인 거경(居敬)은, 미발의 도덕적 가능성을 실제의 이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동성을 확보하려는 공부이다. 사물과 접촉하는 일상생활에서 사물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보통 사물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반응의 기준이 사물에 대한 호오(好惡)인 까닭에 마음의 반응은 다가오는 사물이 어떤 것인지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현실에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욕망으로 갈등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인 수동적 반응을 피하고 그 자극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지각(知覺)⁷⁾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지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부인 거경은 먼저, 사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응의 원리가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갖

7) 지각이란 마음이 외부의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이 반응의 결과를 의식하는 능력이다 (정원재, 「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李珥)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18). 외부 대상에 대한 호오에 따른 반응은 그 결과 (비도덕적 행위)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수동적인 반응인 까닭에 잘못된 반응 혹은 좋은 지각작용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추어져 있음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비도덕적 반응은 이치가 아닌 사물에 근거한 호오에 따른 결과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자극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치(理)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미발에 갇쳐진 도덕적 가능성을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물과 접촉하여서도 각각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거경은 효제(孝悌)나 어묵(語默)과 같이 실질적이고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가족과 관계된 가까운 사물이고, 자신이 가다듬기 쉬운 일은 말하고 행동하는 등의 지각작용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깝고 작은 일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이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이치에 따라 잘 반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거경은 결국 사물에 이끌린 마음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주재(主宰)하는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는 과정이다.

함양(涵養)은 거경을 지속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올바른 반응에 익숙해진 상태를 말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거경한다면 이러한 반응양식은 일종의 습관⁸⁾으로 굳어질 수 있다. 자연히 거경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사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도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함양이란 좋은 지각작용의 습관화가 축적되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마음은 새로운 일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거경을 통해 함양되는 바가 늘어난다면, 조그만 방은 신경쓰지 않고도 언제나 깨끗이 청소할 수 있으므로 마침내 커다란 대청과 행랑까지도 깨끗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聖門日用工夫, 甚覺淺近. 然推之理, 無有不包, 無有不貫, 及其充廣, 可與天地同其廣大. 故爲聖爲賢, 位天地, 育萬物, 只此一理而已.

성인 문하에서 평소에 행하던 공부는 매우 쉽고 일상적이라고

8) 이러한 습관의 자연스러움은 미발의 본성이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느껴진다. 그러나 그 이치를 미루어 나가면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꿰뚫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이 가득 채워져 넓혀지면 천지와 그 광대함을 함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현인이 되어 천지를 자리잡고 만물을 기르는 것은 단지 그 하나의 이치일 따름이다. (학2-9)

이발에 가하는 공부는 이치를 따지는 궁리(窮理)로, 이는 다시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로 구분된다. 격물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치란 사물과의 반응을 바로하기 위해 자신이 지켜야 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거경이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했듯 격물 역시 자신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일상의 일에서 출발한다.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 왜 옳은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그 실천하는 바를 더욱 굳건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지는 지각능력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다. 격물에서 얻은 사물의 이치는 비단 한 사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⁹⁾ 다른 사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한 사물에서 얻은 이치를 미루어 나간다면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지각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각을 지극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험하지 않은 천지의 모든 사물에서까지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선지후행의 수양

… 夫泛論知¹⁰⁾行之理, 而就一事之中以觀之, 則知之爲先行之爲後, 無可疑者. 然合夫知之淺深, 行之大小而言, 則非有以先成乎其小, 亦將何以馴致乎其大者哉. … 但以爲必知之至, 然後所以治己治

9) 이치는 형이상자로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관통하는 존재원리·행동원리이다 (손영식, *op. cit.*, p. 197; pp. 286~287).

10) 상기한 『주자어류(朱子語類)』3과 『주서백선(朱書百選)』 등에서는 '知'를 '알다, 지식' 등으로 번역하였지만, 본고에서는 '지각하다, 지각작용' 등 지각 능력과 관계된 단어로 보았다.

人者, 始有以盡其道耳. …

… 아는{지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논하여 한 가지 일에 나아가서 관찰해 보면, 아는{지각하는} 것이 먼저이고 행하는 것이 뒤가 되는 것이 확실하니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지각하는} 것에 알고 깊은 정도가 있고 행하는 것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면, 그 작은 것을 우선 이루지 못하고서 또한 장차 어떻게 그 큰 것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 다만 반드시 아는{지각하는} 것이 지극해진 이후라야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다스리는 것이 비로소 그 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 (『오회숙에게 답하다』, pp. 297~299, { }는 필자)

공부의 완성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통해서만 기대해볼 수 있다. 선지후행은 지각을 완성한 뒤에야 실천을 완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지각을 완성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근거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실천을 완성한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행동함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바른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선지후행의 구조는 논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각의 능력이 완전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실천의 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지후행은 미발의 공부와 이발의 공부에서 각각 그 원리가 된다. 한 사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경이 없다면, 습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함양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거경을 통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충분히 지속된다면 함양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또한 한 사물에서 자신이 지킬 부분을 깨닫는 격물의 단계가 없다면, 다른 사물로 미루어 나갈 만한 것이 없으므로 치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격물을 통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지켜야 할 원리가 분명해지므로 다른 사물에 나아가는 치지 역시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부의 구조는, 완전한 지각능력이 갖춰지지 않았

다고 해서 올바른 실천에 이르지 못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지각작용을 이루는 것도, 실천을 지극히 하는 것에도 모두 얇고 깊음과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의 실제에서 선지후행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올바른 이치를 깨달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가볍고 쉬운 일의 경우에 해당한다. 명백히 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효제와 같은 일에서 거경이 출발하는 까닭이다. 가까운 사물에 대해 충분히 함양된 바가 있어야 먼 일에 착수할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격물 역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효제에 그 출발점을 둘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에서 쉽게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라야 실천하지 못한 일들에까지 미루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제에 있어서 작은 지각능력의 향상과 작은 실천의 향상은 순환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각능력의 향상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작음의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지각을 이룬 다음에야 큰 지각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다.

2.3. 옛날의 이상적 공부

古者小學已自養得小兒子這裏定, 已自是聖賢坯璞了. 但未有聖賢許多知見. 及其長也, 令入大學, 使之格物致知, 長許多知見.

이전에는 소학에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 속을 스스로 안정되게 함양하여 저절로 성현의 바탕을 이루었다. 다만 성현의 수많은 지식{지각능력과 견문}이 아직 없었을 뿐이다. 그들이 성장하면 대학에 입학시키고 외물과 일처리에 나아가{사물에 나아가} 지혜롭게 되어서{지각을 다하여} 수많은 지식{지각능력과 견문}을 기르도록 하였다. (학1-3, { }는 필자)

小學是事, 如事君事父事兄處友等事, 只是教他依此規矩做去. 大學是發明此事之理.

소학은 일처리로서, 예컨대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친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일처리이니, 단지 아이들에게 그러한 법도에 따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대학은 그 일처리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다. (학1-7)

… 只是一箇事. … 古人於小學存養已熟, 根基已深厚, 到大學, 只就上面點化出些精彩. 古人自能食能言, 便已教了, 一歲有一歲工夫. 到二十時, 聖人資質已自有十分. 大學只出治光彩.

… {소학과 대학은} 단지 한가지 일이다. … 옛 사람들은 소학에서 이미 익숙하게 간직하고 길러서 근본이 이미 돈독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단지 그 위에 나아가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 넣을 뿐이다. 옛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부터 곧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면 한 해 만큼의 공부 성과가 있어서 20세가 되면 성인의 자질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다. 대학에서는 단지 빼어난 무늬를 만들 뿐이다. (학1-10, { }는 필자)

공부론의 제 일장인 「학1」에서 주희는 옛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옛날의 공부는 어렸을 때 소학에서 배운 뒤에 나이가 들어 대학에서 배우는 방식이었다. 소학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사물에 반응하는 법을 직접 가르쳤다. 부모나 친구를 대하는 비근(卑近)한 일상의 일에서 자신이 이미 명백히 알고 있는 행동원리에 따라 올바르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는 거경의 공부이다. 또한 하나의 가까운 일에서 배운 것을 익숙하게 간직하는 결과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소학은 함양을 포함한다. 요컨대 주희는 옛사람들이 소학에서 거경을 익혀 함양을 이루었다고 여긴 것이다. 나이가 들어 대학에 입학해서는 격물치지를 배운다. 소학을 통해 이미 익숙해진 일처리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격물에, 이를 통해 새로운 일에서까지 지각을 바로잡는 것은 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학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공부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다. 이미 앞에서 함양과 치지가 각각 거경과 격물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은 선지후행의 원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나아가 옛 공부는 어렸을 때 거경을 익히고 함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 소학공부의 시작인 거경은 스스로 주변의 일에서부터 자신의 지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때 반응의 근거가 되는 판단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미발의 본성에 있다. 가깝고 작은 일상의 일에서 거경을 시작하는 까닭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깝고 작은 사물과의 반응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라도 스스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는 아직 도덕적 가능성이 발현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함양을 자연스럽게 이를 조건이 된다. 주희의 심성론에 근거한다면 도덕적 행동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외부 사물에 이끌리고 주인의 위치를 상실하여 잘못 형성된 습관이 도덕적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어렸을 때 잘못된 반응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미발의 본성이 이발로 드러나 사물에서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함양이 이루어질 것이다¹²⁾.

또한 소학공부에서 대학공부로의 이행 역시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거두어들여 함양해간다면 마음이 욕망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맞지 않게 된다. 이에 자신이 이미 행한 일처리를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을 굳건히 하고 먼 일일까지 미루어갈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곧 격물치지는 소학공부의 연장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 넣을 뿐”인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익힌 소학의 공부가 바탕이 된다면 대학의 공부 역시 굳이 억지로 힘쓸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3. 거경부재의 폐단

앞에서 보았듯이 소학은 거경을 통해 지각능력을 완성하고 함양에서 실천을 완성하는 공부이다. 전자에 힘을 쓰면 후자는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학공부의 핵심은 거경이라 할 수 있다. 거경은 자

11) “...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에게 공손한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성품이다. 이것은 본성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일 뿐,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고 물욕에 굴복 당해, 마침내 그 본성을 무너뜨리고 이를 회복할 줄 모른다 ... (… 愛親敬兄, 忠君悌長, 是曰秉彝, 有順無彊. … 衆人蚩蚩, 物欲交蔽, 乃顏其綱, 安此暴棄. …)” (『소학제사』, *op. cit.*, p. 24).

12) 조현규, 「朱熹『小學』의 교육철학적 의미」, 『教育哲學』18, 한국교육철학회, 2000, pp. 332~333.

신이 가진 이치를 긍정하고 실천에 집중하는 공부이다. 본성의 이치가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긍정한다는 것은, 그 이치에 맞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정도로 습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의미한다. 미발의 이치가 이미 존재하므로 그것이 언제든지 발현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천에 집중하려는 것은 이러한 습관화를 실제로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소학공부가 부재한다. 이에 도덕적 인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는 거경을 통해 함양된 바 없이 지각능력을 완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곧 자신이 가진 도덕적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고 혹은 실천에 집중하지 않고서 지각능력을 완성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희는 당대의 호남학, 불교 등의 공부법을 거경 없이 지각을 완성하려는 두 양상으로 이해하여 각기 그 노선들의 폐단을 지적한다.

3.1 이치를 긍정하지 않는 폐단

… 若曰於事物紛至之時, 精察此心之所起, 則是似更於應事之外, 別起一念, 以察此心. 以心察心, 煩擾益甚, 且又不見, 事物未至時用力之要. …

… 만약 사물이 잡다하게 이르러 올 때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정밀하게 살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물에 응접하는 마음 외에 따로 한 가지 마음을 일으켜서 이 마음을 살피라는 말이 됩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면 번다하고 소란함이 더욱 심할 뿐 아니라 게다가 또 사물이 이르기 전에 힘써야 할 요체가 무엇 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장흥부에게 답한다』, p. 100)

사물과 반응할 수 있는 이치가 자신에게 있음을 긍정하지 않으면 공부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올바른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치가 본성에 없다고 여기는 공부에서는 도덕적 행동 원리인 이치를 마음 밖에서 찾는 공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령 궁리한 내용이 옳은 내용이라도 그 기준은 자신에게 절실한 것이 될 수 없다. 우연히 절실한 이치에 이르러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

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알고만 있을 뿐 자신의 일에서 왜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언제나 욕망과 도덕원리가 맞서는 갈등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올바른 반응은 오로지 사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작 힘써야 할 요체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마음속으로는 갈등하며 도덕적 행동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부에서 도덕적 실천이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러한 억지노력은 결국 공부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현실에서는 거경을 통해 함양한 내용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잘못된 습관이 쌓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절실하지 못한 이치에 근거한 억지노력은 실천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옳은 이치를 알고는 있지만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궁리한 이치에 따라 반응하려해도 이미 익숙해진 대로 행동하려는 습관으로부터 끝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이러한 이치에 따른 실천은 설명한 사물에 대하여 반복해서 옳은 실천을 행하였어도 매번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끝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굳어질 수 없다. 오로지 그 사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 때에라야 바른 실천이 가능하지, 좀 더 강한 외부 자극과 맞닥뜨리는 순간 혹은 주의를 다른 일에 기울이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은 잘못된 습관에 밀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정해야 할 습관들이 많음에도 그나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거나, 모든 사물을 살피다가 아무 일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 若不於此先治其知，但見其所以爲心者如此，識其所以爲心如此，泛然而無所準則，則其所存所發亦何自而中於理乎。…

… 만약 여기에서 먼저 지혜를 쌓지{지각을 다하지}[致知] 않고, 다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음을 보고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범상하게 생각하여 아무런 준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마음에 가진 바와 마음이 발하는 바가 또한 어떻게 이치에 맞겠습니

까? … (『장흠부에게 답하다』, p. 101, { }는 필자)

공리의 결과가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이치 사이의 갈등에 이름을 안다면 반대로 공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공부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마음의 모든 반응에 이미 이치가 깃들어 있다고 믿음으로서 앞의 경우에서 미진했던 실천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 역시 보편적인 도덕성을 근거지어주지 못한다. 모든 실천을 허용함으로써 이미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 반응까지도 옳다고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거경을 통해 함양한 바가 적기 때문에 현실의 지각작용은 성인이 아니고서야 사물에 수동적으로 이끌린 습관일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사물에 이끌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私欲)까지도 이치의 발현으로 여기고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의 공부가 공리에만 치중한 과(過)함의 폐단이었다면 이러한 공부는 공리 자체를 폐하게 되는 불급(不及)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실천에 집중하지 않는 폐단

… 若必如此, 則是未知己前可以怠慢放肆, 無所不爲, 而必若曾子一唯之後, 然後可以用力於敬也. 此說之行, 於學者日用功夫, 大有所害, 恐將有談玄設妙以終其身而不及用力於敬者. 非但言語之小疵也. …

… 정말 이 {지(知)}라는 한 글자가 성인이 되는 관건이라는 점}와 같다면 얕이 있기 {아직 지각을 이루기} 이전에는 태만·방종하여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며, 공자의 하나로 일관하는 도에 대해 증자와 같이 이해한 연후에야 경(敬)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설이 유행하면 학자의 일용공부(日用工夫)에 커다란 해를 미쳐 장차 현묘(玄妙)한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뿐 경(敬) 공부에는 힘을 쓰지 않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 해악이 말과 문자의 작은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 (『호광중에게 답하다』, p. 286, { }는 필자)

거경의 부재는 또한 가까운 데에서 실천에 집중하지 않은 채로 지

각을 완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히 공리를 통해 바람직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주희가 볼 때 이러한 공부는 중도에 막히게 될 수밖에 없다. 충분히 함양한 것이 없는 마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눈앞의 일상적인 작은 일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각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물들에 대한 이치까지도 따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까운 일에 대한 실천 없이 지각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멀고 어려운 사물까지도 논의해야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그 정오(正誤)를 분명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묘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현묘한 논의는 그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본래 해야 할 바, 즉 실천의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점에서 “말과 문자의 작은 실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천 없이 공리만으로 지각을 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공리가 과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멀고 어려운 논의를 마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각을 다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가깝게 여기어 실천으로 이끌어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함양하고 있었던 증자(曾子)와 같은 이일 뿐이다. 함양한 것이 적어 그 논의를 멀고 어렵게 느끼는 보통사람들이라면 자연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는 자질의 우열에 따라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성인의 자질을 타고난 이는 실천을 완성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이는 본래 실천할 수 없는 공부라고 한다면, 후자의 사람들은 공리에 힘을 쏟으려고도 하지 않게 된다. 곧 이러한 공부법은 태만·방종하게 되더라도, 지각을 다할 자질이 부족한 데서 비롯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그들의 행태를 설명하고 변호해주는 변명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리에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급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실의 공부

4.1. 소학공부와 대학공부의 병행

或問：某今看大學，如小學中有未曉處，亦要理會。曰：相兼看亦不妨。學者於文爲度數，不可存終理不得之心。…

어떤 사람이 물었다: 제가 지금 『대학』을 보고 있더라도, 『소학』에서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역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답하였다: 서로 겸비해서 보아도 상관은 없다. 배우는 사람들은 문물과 제도에 대해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 (학1-22)

有人專要理會躬行，此亦是孤。

몸소 실천하는 것만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협소한 것이다. (학3-33)

주희가 생각한 옛 공부법은 본래 소학공부를 한 뒤에 대학에서 격물치지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미 함양된 바가 많기 때문에 대학의 궁리는 다만 이미 행하고 있는 바를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소학이 부재하는 현실에서의 공부는 대부분의 경우에 궁리의 과불급으로 인한 폐단으로 귀결되고 만다. 이는 결국 대학공부의 궁리는 오로지 소학공부가 전제될 때에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옛 공부에서처럼 몸소 실천하는 소학공부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학이 자연스러운 공부의 출발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미발의 본성이 가려지기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미리 잘못된 습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들에 젖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 지금에 소학공부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일은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 된다.

이에 주희는 『소학』과 『대학』을 겸비해서 볼 것을, 즉 소학공부와 대학공부를 병행할 것을 말한다. 옛 공부가 거경과 함양을 충분히 이

론 뒤에 공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현실의 공부는 거경으로 함양을 이루는 것과 공리를 겸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리와 거경함양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옛 공부에서는 대학의 공리가 소학의 거경함양 속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학의 거경함양이 부재할 때 이루어지는 공리는 과불급의 폐단들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주희는 여전히 거경을 통한 함양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도 여전히 공리공부가 유효할 수 있음을 말한다.

學者工夫，唯在居敬窮理二事。此二事互相發。能窮理，則居敬工夫日益進。能居敬，則窮理工夫日益進。譬如人之兩足，左足行，則右足止。右足行，則左足止。…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경건함에 머물고 이치를 궁구하는 두 가지 일에 있다. 그 두 가지 일은 서로 드러나게 한다. 이치를 궁구할 수 있으면 경건함에 머무는 공부가 나날이 향상되고, 경건함에 머물 수 있으면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진다. 비유컨대 사람의 두 발 가운데 왼쪽 발이 나가면 오른쪽 발이 멈추고, 오른쪽 발이 나가면 왼쪽 발이 멈추는 것과 같다. … (학3-18)

… 只如居敬窮理兩事相礙。居敬是箇收斂執持底道理，窮理是箇推尋究竟底道理。只此二者，便是相妨。若是熟時，則自不相礙矣。

… 가령 경건함에 머물고 이치를 궁구하는 두 가지 일은 서로 가로막는다. 경건함에 머무는 공부는 마음에 거두어들여서 붙잡는 방법이며,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는 미루어 살펴서 궁구하는 방법이다. 그 두 가지 일은 서로 방해할 뿐이다. 그러나 익숙해졌을 때는 저절로 서로 가로막지 않는다. (학3-19)

거경함양과 공리는 함양된 바가 적은 경우에는 서로를 가로막는 공부에 불과하다. 거경할 때는 아직 그러한 실천에 익숙하지 않아서 매번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이 충분히 함양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공리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 또한 격물할 때는 아직 새로운 일에 나아가 자신이 힘써야 할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차리로 이어지기 어렵다. 함양된 것이 적은 현실에서 공부의 초반에는 이렇듯 거경과 궁리는 서로를 가로막아 다른 한쪽이 나아갈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걸음을 걸어 나가기 위해 두 발을 모두 앞으로만 내딛을 수는 없듯이, 설령 함양된 바가 적을 때라도 서로를 가로막는 두 공부의 역설적으로 서로를 드러낼 수 있다. 한 사물에 대해 거경하는 일은 궁리를 가로막지만, 이는 오히려 아직 거경이 더욱 필요한 수준임을 암시한다. 아직 그 사물에 거경하는 것에 충분히 젖어들지 못했는데 거경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궁리하게 되면 그러한 지각은 함양되지 못할 것이다. 선부른 궁리는 거경공부의 성과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다. 그러나 일단 함양에 이른다면 나아가 이치를 따질 실천의 내용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궁리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궁리는 거경을 가로막는데 이 역시 궁리가 더욱 필요할 때임을 의미한다. 아직 궁리를 통해 자신이 힘쓸 곳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결국 역지실천이 되어 끝내 함양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리가 완전해진다면 직접 힘쓸 곳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거경으로 나아가갈 발판이 마련된다.

따라서 옛날의 공부가 소학에서 대학으로라는 직선적 과정이었다면 현실에서의 공부는 소학과 대학 간의 순환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비록 함양된 바가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함양은 궁리를, 궁리는 함양을 촉발시키는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결국 격물치지라는 궁리의 과정은 소학공부와 관련될 수 있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이미 함양한 실천의 원리를 따지는 격물과 실제로 사물과 만났을 때 거경해야 할 요점을 알려주는 치지가 될 수 있을 때 궁리가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살펴본 공부의 폐단들은 이러한 관계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거경함양과 무관한 내용을 궁리하였기 때문에 고원한 논의에 빠지게 된 것이고, 서로 가로막는 일을 무턱대고 해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2. 거경에 힘쓰는 공부

學者須是奈煩, 奈辛苦.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수고를 참고 고통을 견뎌야 한다. (학2-46)

爲學極要求把篙處著力. 到工夫要斷絕處, 又更增工夫, 著力不放令倒, 方是向進處. 爲學正如撐上水船, 方平穩處, 儘行不妨. 及到灘脊急流之中, 舟人來這上一篙, 不可放緩. 直須著力撐上, 不得一步不緊. 放退一步, 則此船不得上矣!

학문할 때는 노를 저을 필요가 있는 곳에서 힘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부가 끊기려고 하는 곳에서는 더욱 공부해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학문하는 것은 바로 배를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잔잔한 곳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별로 문제가 없다. 여울목의 급류 가운데 도달하면 뱃사공은 노젓는 것을 느슨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곧바로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그 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학2-65)

이미 언급하였듯 주희가 생각한 옛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도덕적 가능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소학의 과정을 이미 겪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로 자신의 도덕적 가능성을 가리게 된다. 이에 주희는 현실의 공부를 두고 물을 거슬러 오르는 수고를 참아야 하고 공부가 끊기려는 곳에서는 고통을 견디어 더욱 공부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물을 거슬러 오른다는 표현을 이미 잘못 자리잡은 마음의 습관과 도덕적 목표를 향한 기운이 맞서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고통을 견디는 것을 도덕적 기운으로 잘못된 습관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앞에서 궁리에 치중함으로써 내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

있던 폐단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주희는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는 공부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힘을 쏟는다’는 표현의 대상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學者大要立志。所謂志者，不道將這些意氣去蓋他人，只是直截要學堯舜。… 這些道理，更無走作，只是一箇性善可至堯舜，別沒去處了。下文引成鬲顏子公明義所言，便見得人人皆可爲也。…

배우는 사람은 의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의지[志]란 어떤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직접 요순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 이 도리는 별다른 작위 없이 단지 본성의 선함만으로도 요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 (맹자가) 그 아래에서 인용한 성간成鬲·안자顏子·공명의公明義의 말에서 곧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2-28)

… 爲學在立志，不干氣稟強弱事。… 爲學何用憂惱？但須令平易寬快去。…

… 학문하는 것은 의지를 세우는 데 있으며, 품부받은 기운의 강하고 약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 학문을 하는데 근심 걱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반드시 쉽고 즐겁게 해야 한다. … (학2-31)

而今緊要且看聖人是如何，常人是如何，自家因甚便不似聖人，因甚便只是常人。就此理會得透，自可超凡入聖。

지금 긴요한 것은 우선 성인은 어떻게 보통 사람은 어떤지, 자신은 무엇 때문에 성인처럼 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단지 보통 사람일 뿐인지 살피는 것이다. 이 점을 투철하게 이해하면 저절로 평범한 경지를 뛰어넘어 성인이 될 수 있다. (학2-37)

그에 따르면 힘쓴다는 것은 스스로 성인이 되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는 우선 자신이 성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미발의 본성에 도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성인과 자신의 현실적인 차이를 살피는 데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이 성인보다 못한 점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점을 고쳐 성인이 가까워지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성의 이치를 긍정하고, 이러한 이치를 바탕으로 가까운 일에서부터 지각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거경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희가 현실의 공부에서 힘써야 할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거경이라 할 수 있겠다.

‘힘을 쏟는다’는 표현은 이러한 거경이 현실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낸다. 성인이 되겠다는 의지가 굳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현 상태에서 자신이 고칠 것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단순히 자신이 사물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반응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 판단한 까닭에 잘못된 반응으로 이르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물을 거슬러 오르고 힘쓴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소학의 부재로 인해 잘못 잡힌 습관과 자신의 도덕적 목표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자신의 그동안의 실천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투철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힘씀이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중도에 지금의 익숙한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이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일에서부터 문제점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간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의 공부는 억지노력과 구별될 수 있다. 선지후행의 공부에서 억지라는 것은 지각을 다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사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 반응하는 상태를 기운의 강함으로 이겨내어 다른 반응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경은 사물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 만약 바른 판단에 이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므로 실천을 고치는 데에는 전혀 힘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희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 품부(稟賦)받은 기운의 강약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문제인 부분을 투철히 이해하기

만 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공부할 부분이 없는 까닭에 품부받은 기운의 강약과 공부의 성패(成敗)는 무관한 것이다.

4.3. 폐단의 시정

… 某看來, 小學却未當得敬. 敬已是包得小學. 敬是徹上徹下工夫. 雖做得聖人田地, 也只放下這敬不得. 如堯舜, 也終始是一箇敬. 如說“欽明文思,” 頌堯之德, 四箇字獨將這箇敬做辨初頭. …

… 내가 살펴보니, 소학에서는 아직 경건함을 얻을 수 없지만, 경건함은 이미 소학을 포함하고 있다. 경건함은 위아래를 꿰뚫는 공부이다. 비록 성인의 경지가 되었더라도 또한 경건함을 버리지 않는다. 가령 요임금과 순임금도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였다. 예컨대 “경건하시고 총명하시며 우아하시고 신중하시다”라는 구절은 요임금의 덕을 칭송한 것인데, 네 글자 가운데 특히 ‘경건함’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 (학1-11)

현실의 공부는 거경에 힘을 쓰고 소학과 대학 간의 병행으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옛 공부와 차이를 보인다. 소학의 부재 속에서 사물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그에서 비롯하는 잘못된 반응이 습관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의 공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투철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거경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거경을 통해 함양할 시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소학이 부재하는 현실의 공부에서는 소학과 대학의 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점의 차이란 함양한 것이 충분히 쌓이게 된다면 끝내 미미해져서 사라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요임금과 같은 옛 사람들 역시 거경을 어렸을 때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계속하였기 때문에 궁리와외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필부라도 역시 거경에 가장 힘써야 하며, 거경을 통해 함양된 것과 격물치지가 상호과정을 이루기 때문에 지각작용과 자연스러운 실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출발점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러한 두 공부는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경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위아래를 꿰뚫는”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고원한 논의를 통해서 성인의 공부와 범인의 공부를 구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착수할 수는 없었던 공부의 폐단을 살펴보았다. 반면 주희가 제시한 이러한 공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성인과 범인의 구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수 있게 된다.

義理無窮，前人恁地說，亦未必盡。須是自把來橫看豎看，偃入深，偃有在。

의리는 거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전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한 것도 역시 반드시 다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스스로 모든 측면을 살펴면서 최대한 깊이 통찰하고 최대한 탐구해야 한다. (학3-60)

또한 거경에서 출발하는 현실의 공부는 그 원리상으로도 보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성의 이치를 긍정하지 않은 폐단 중에는 갈등으로 인해 실천에 이르지 못하거나 사욕을 이치로 여기고 행위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결코 보편화될 수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희가 제시한 현실의 공부는 실천을 통해 그 이치를 확인해나간다는 점에서 보편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단순히 외부의 규범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까닭에 성현의 글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물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가까운 일상에서 확인하고 따져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그 결과 나타나는 반응의 수준에서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지각작용의 올바름을 따지는 기준은 자신의 마음이지만 현실에서 그 기준을 계속된 실천을 통해 점검해본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편성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5. 도덕적 삶을 위한 문제의식으로서 소학의 부재

이상에서 소학의 부재가 주희의 공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소학의 부재는 단순히 『소학』을 짓는 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미발의 공부를 익힘으로써 성장한 뒤에 이발의 공부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부의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학이 부재하는 현실은 자연히 공리공부의 과불급으로 이어지게 되어 여러 폐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주희는 이러한 소학이 부재하는 현실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옛 공부와는 표면적으로 구별되는 현실의 공부를 제시한다. 옛 공부가 소학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직선적인 과정이었다면 현실의 공부는 소학과 대학을 함께 공부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옛 공부가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소학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미 잘못 자리 잡힌 습관들을 살피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거경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게 된다. 유청지와 함께 『소학』을 지은 그의 의도는 거경을 강조하는 현실의 공부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학이 있었을 때의 공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공부가 될 수 있었다. 도덕적 삶의 주체는 도덕적 행동의 주체가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희가 지적한 소학의 부재는 결국 도덕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현실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을 이루는데 노력하기보다도 도덕적 행동을 도출하기에 급급한 다른 공부법들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부의 목표가 한 번의 좋은 행동 혹은 한 번의 도덕적 실천에 놓여있다면,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다른 공부들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부의 실천이란 일회적인 도덕적 행위에 그칠 뿐 지속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낳을 수 있는 도덕적 삶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주희는 소학이 있었을 때의 공부를 소학이 없는 현실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지켜야 할 부분을 유지하고자 한 결과 이와 같은 공부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주자어류(朱子語類)』, 黎靖德 編纂, 허탁 · 이요성 · 이승준 역, 청계, 2001.
- 『주서백선(朱書百選)』, 朱子思想研究會 譯, 혜안, 2000.
- 『소학(小學)』, 주희(朱熹) · 유청지(劉淸之) 편, 윤호창 역, 홍익, 2005.
-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9.
- 정원재, 「지각설(知覺說)에 입각한 이이(李珣) 철학의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조현규, 「朱熹 『小學』의 교육철학적 의미」, 『教育哲學』18, 한국교육철학회, 2000.